

삶의 힘이 자라는

2020 겨울 제23호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Magazine

우리인천교육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근로계약서 대봉투 캠페인」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근로계약서 대봉투 캠페인」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일환으로 제작한
「근로계약서 대봉투 캠페인」이 2020 대한민국광고대상에서
2개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표지이야기 +

04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근로계약서 대봉투 캠페인」

특집 +

06 인천을 품고 세계로, 우리인천교육(코로나19 이후 인천의 미래교육)

12 사진으로 보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코로나19 대응

캠페인 +

16 학생 자치가 온라인에서, 그리고 제22회 인천과학대제전에서 활짝 피다!

20 나로부터 시작하는 생태적 모두살이

24 2020 제5회 푸른미래강화교육으로 농어촌 교육의 부활을 꿈꾸다!

학교돌보기 +

26 '삶의 힘'을 키우는 내가 사계절 ECO 계절학교

30 행복배움학교 6년, 도리를 기록하다

32 배움의 나이가 필요해? 물음표(?)를 느낌표(!)로

공감 +

34 '수업 나눔 모꼬지, 함께해서 참 좋다!'
제4회 인천 초등 수업 페스티벌, 랜선 축제 현장을 가다

40 코로나19 시대에도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

42 지구반대편 콜롬비아로부터 전해진 감사와 감동의 증표

정보 +

46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활동기



사장님, 근로계약서는 잊지 않으셨죠?

근로기준법상 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장님, 이 청소년을 위해 잊지 말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세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근로계약서 대봉투 캠페인』

— 2020 대한민국광고대상 2개 부문 대상 수상 —

글 · 사진 | 소통협력담당관

“청소년 노동 문제가 개선된다면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 전반이 향상될 겁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광고회사 아이디어이 협업으로 진행한 「근로계약서 대봉투 캠페인」이 제27회 ‘2020 대한민국광고대상’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호평 받아 ▷커뮤니케이션디자인 부문 및 ▷프로모션 부문에서 대상, ▷공익광고 부문 금상, ▷브랜드콘텐츠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작년 인천지역 청소년노동인권실태조사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착안하여 청소년과 고용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근로계약서 대봉투를 제작하였습니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점주가 필수로 요구하는 서류가 ‘보건증’이라는 점에서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받아주는 대봉투 겉면에 뜯어쓸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인쇄하여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봉투는 인천 지역 보건소와 142개 고등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24,400부를 배부하여,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최소한의 안전장치, 근로계약서 대봉투 캠페인」

2020. 11. 26.(목) 인천광역시교육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캠페인에 참여한 담당자들을 만나 「근로계약서 대봉투 캠페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근로계약서 대봉투 캠페인」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인천정보과학고등학교 장애자 선생님(당시 청소년 노동인권 업무 담당자)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노동은 밑바닥 노동으로 존재하고 있고, 일하는 청소년은 단기간·장시간 노동력으로 소모되고 있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노동의 문제가 개선된다면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 전반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해 「근로계약서 대봉투 캠페인」을 기획하였습니다.



광고를 제작한 아이디어의 이승재 대표

「근로계약서 대봉투 캠페인」은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목표로 시작된 캠페인입니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착안하여 청소년들이 눈치 보지 않고 필수 안전장치인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돕는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점주의 입장에서 알바생에게 요청

하는 필수 서류가 ‘보건증’이라는 점에서 인사이트를 얻어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받아주는 대봉투 겉면에 근로계약서를 인쇄하여 나눠주는 아이디어로 발전되었습니다.

Q. 청소년들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근로계약서 대봉투 캠페인」에 대한 소감은 ?



현장에서 만난 문학정보고등학교 3학년 김주영 학생

고1부터 알바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쓴 경우도 있었고, 주변 친구들도 안쓰고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로계약서 대봉투」는 간편하게 계약서를 써서 나눠 가질 수 있고, 사장님에게도 자연스럽게 근로계약서의 존재를 알릴 수 있어 좋았어요.

이로사 부천장애인인권센터 조사관(당시 교육청 청소년노동인권상담사)

「근로계약서 대봉투」가 나오고 나서 청소년기관에서 가장 먼저 반겼고, 많은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단체가 배포 요청을 해왔습니다. 근로계약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하고 나면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청소년만이 아니라 여성, 노인 노동자들이 쓰도록 해도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소통협력담당관 정영찬 선생님

사회 문제 해결에 참신한 광고 기법을 도입한 우수사례입니다. 소통과 협업을 통해 나온 아이디어가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이 더욱 확산되어 노동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어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되고 증진되길 바랍니다.

인천을 품고 세계로, 우리인천교육

-코로나19 이후 인천의 미래교육-

인천광역시교육청 2년간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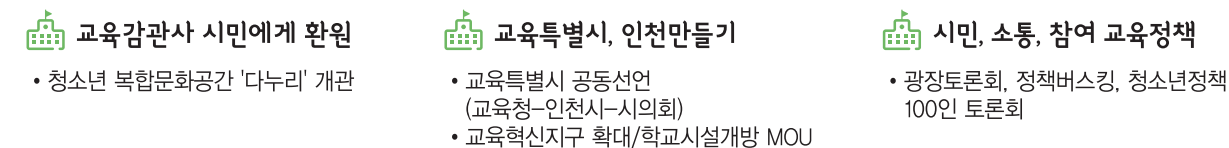
1. 전국 최초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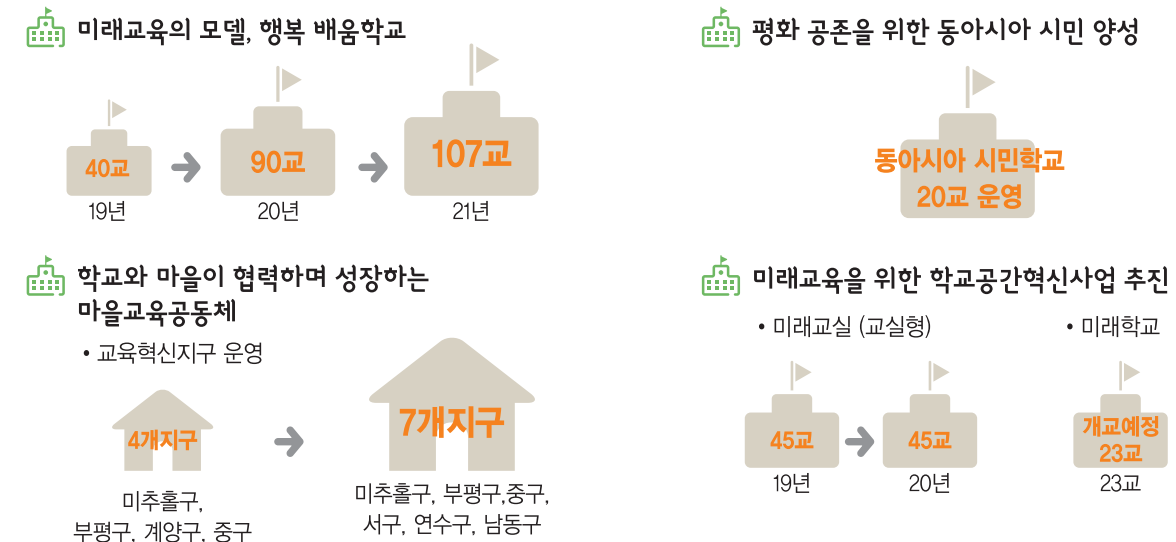
2. 지역 학교간 교육 격차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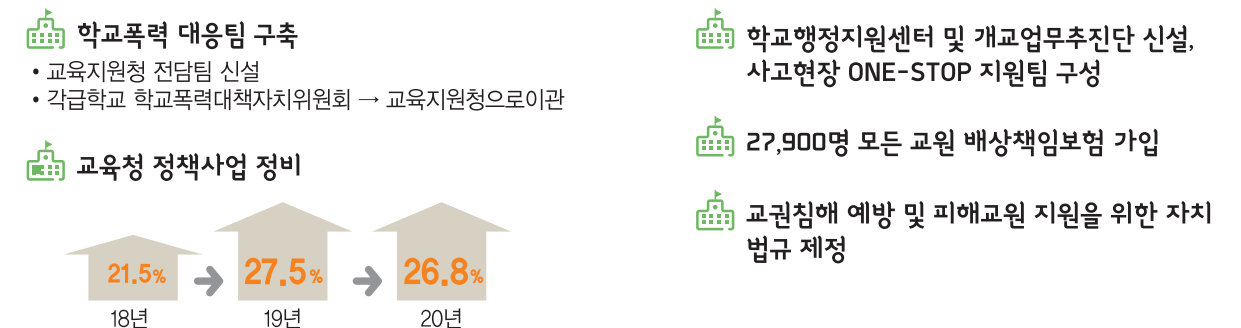
3. 지역사회와 소통 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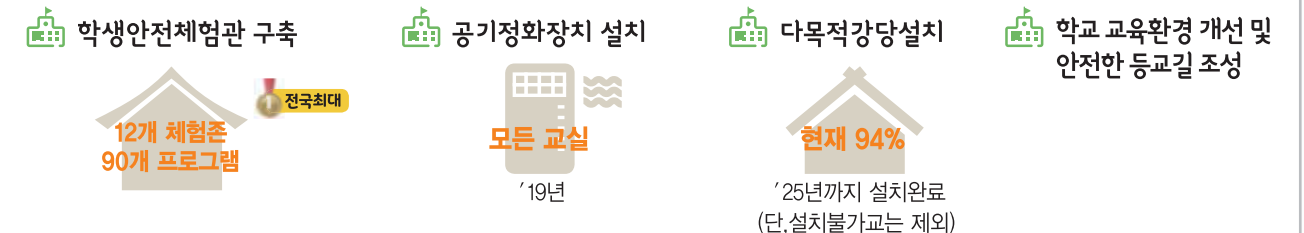
4. 혁신미래교육 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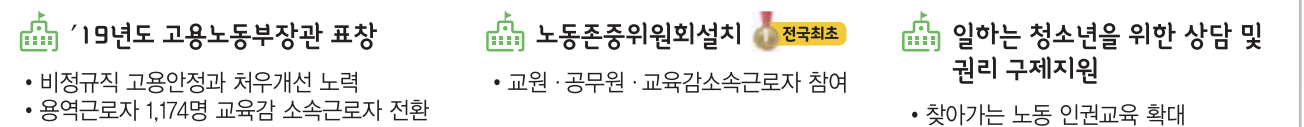
5. 교원존중 수업 전념 문화 조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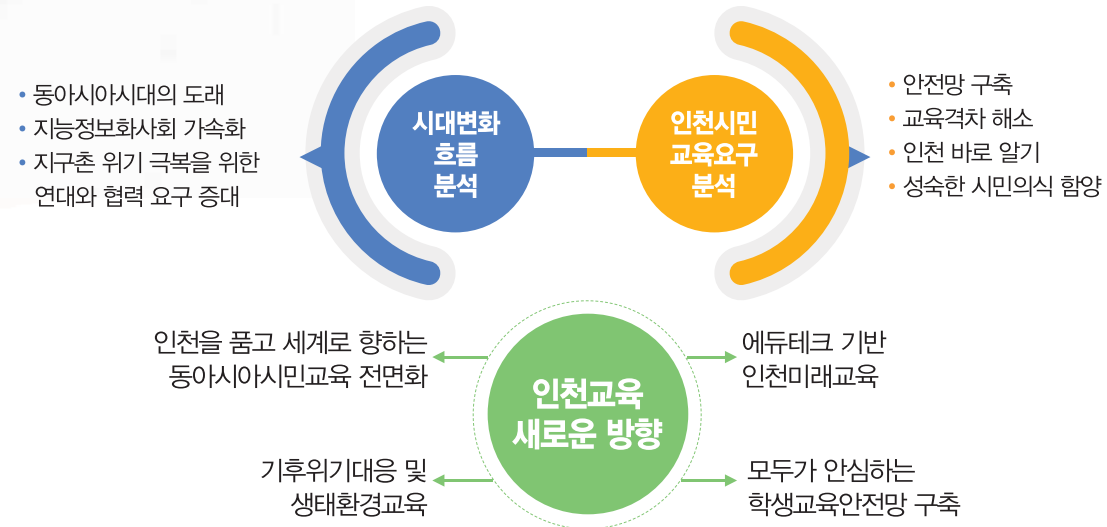
6.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7. 노동 존중 학교문화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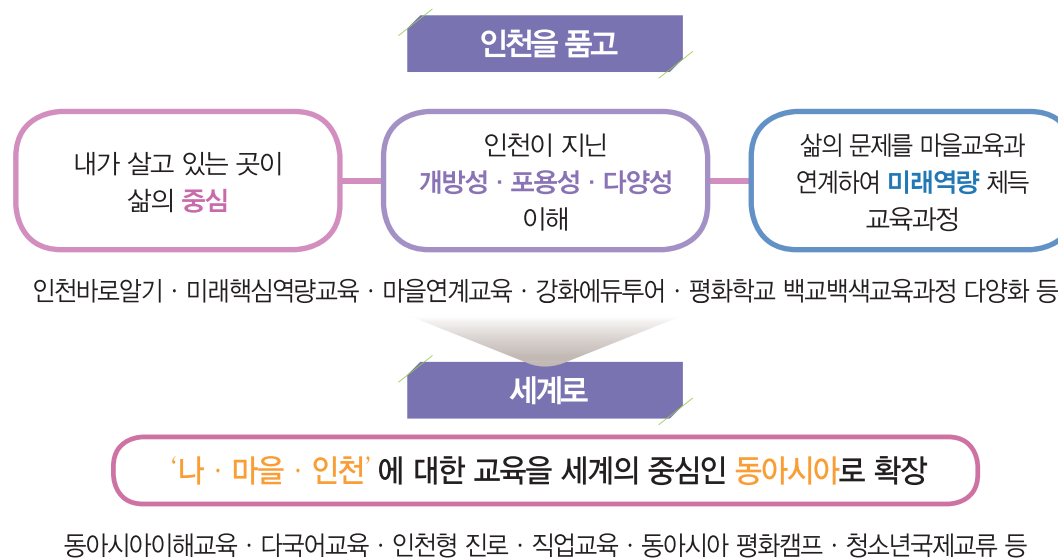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인천교육의 새로운 방향



1. 인천을 품고 세계로 향하는 동아시아시민교육 전면화

동아시아시민교육

‘인천을 품고 세계로’라는 비전하에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인천형 직업교육 활성화 : 인천형 직업교육 가치와 방향

개인의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 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



인천형 직업교육 활성화

- 인천 지역산업과 미래 인천지역 전략산업 요구에 따른 선도적 인재 양성
 - 청학공고→인천바이오과학고, 도화기계공고→인천소방안전고, 삼량고→한국글로벌세프고, 인천정보산업고→인천정보과학고, 인천하이텍고→인천대중예술고
- 인천형 직업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MOU 체결
 - 인천시(항공산업분야), 골든툴립인천공항호텔&스위트(관광산업분야), 뷰티 · 바이오 융합 미니클러스터(뷰티 · 바이오산업분야), 한국토지주택공사 · 대한전문건설협회(건설산업분야)
- 향후 인천형 직업교육의 다변화 추구를 위한 전략
 - 기업위탁형 산업학교 및 항공마이스터고 설립 추진
 - 다문화학생 및 동아시아전략사업에 대한 직업교육 다양화 추구
 - 인공지능, 5G, 관광리조트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속
 - 초 · 중 · 고-기업, 초 · 중 · 고-대학-기업 등으로 연계되는 다양한 직업교육 유형 개발

● 2. 에듀테크 기반 인천미래교육

에듀테크 기반 스마트학교(미래학교) 철학 "아이는 결대로 자란다"

학생 개별화 학습

- 학습격차 발생하지 않는 환경 조성(20명이하)
- 학생 희망하는 학습콘텐츠 활성화 환경 구축
- AI 기반 다국어교육 실시
- 기초학습 및 개별학습 콘텐츠 개발

AI 교육 확대

- AI교육 전문교원 300명 양성('24년까지)
- AI기반 개별화교육 추진 위한 에듀테크 관련 5개 기관 MOU 체결
- SW · 인공지능 교과서 개발('20년)
- 초 · 중 · 고 착한 인공지능 교육 교재 개발('21년)
- 민원안내 AI채팅봇 '응다비'(11월부터 서비스 제공)

온라인 교육환경

- 모든 교실 무선 인터넷 설치 및 교원 노후 PC 교체
- 그린스마트쿨
- 40년 이상 노후학교 미래학교 전환(51교 75동)

유연하고 개방적인 교육 시스템

- 일반고 – 특목고 – 특성화고 공동교육과정 및 공동학점 이수제 도입
- 학교 밖 기관과 연계한 학점 인정 확대
- 지역대학 협력형 교육과정 운영

● 3. 기후위기대응 및 생태환경 교육

6차 대멸종과 인류세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심각한 기후 위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

EU, 한국 등 2050년 탄소중립 선언

학교 환경 네트워크 구축

- 쓰레기 줄이기 교육
- 자원순환 교육
- 자원순환 기후 위기대응 시범실천학교 운영(45교)
- 인천형 생태시민교육과정 편성 · 운영

친환경 학교 운영

- 햇빛발전소 운영
- 학교 숲, 학교 텃밭 조성 확대
- 생태환경교육 및 생태환경을 통한 치유프로그램 실시
- 채식선택 급식 전면 시행

● 4. 모두가 안심하는 학생교육안전망

교육안전망 구축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초등1 · 2학년 1수업 2교사제
- 초등학습준비물 지원금 확대
- 취약계층 학생 스마트기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 서해5도 학교 무선통신학습망 개선(5메가급 → 100메가급)
- 특성화고 자격증 취득비 지원('21년 1억 3천만원 편성)
- 도서지역 통 · 폐합 학교 학생 통학비 및 생활비 지원

생활안전망 구축

- 돌봄현황, 아동학생, 안전현황 전수조사 실시
 - 학생 · 학부모와 온 · 오프라인 소통을 통한 선제적 지원체제 구축
- 교육복지사 12명 신규채용 : 복지사각지대 학생 발견 및 집중 관리
- 고위험군 학생 심리지원 강화
- 감염병 예방 4개년 종합계획 수립
- '폭력없는 인천, 생명존중 인천' 시민운동 확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우리교육청의 대응

● 신속 대응 체제 구축

-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본부장 교육감) 운영
- 탑다운 방식 24시간 상황실 운영(학교-상황실-교육감)

방역

- 교육청-군구청 선제 대응 위한 MOU 체결
- 학교안전화 TF팀 24시간 현장 지원
- 마스크 열화상카메라 소독 등 방역물품 지원 (146억원)

수업

- 스마트기기(16,211대), 인터넷통신비(9,572명) 지원
- 기초학력 저하 등 교육격차 해소 맞춤형 지원
- 온라인 학습 운영비 지원 및 온오프라인 수업자료 개발 보급

돌봄 및 급식

- 취약학생, 사각지대 학생 전수조사
 - 신고체계 및 집중관리 강화
- 긴급돌봄 중식비, 방역물품 지원(41억원)
- 급식 추가인건비 및 방역비, 가림막 설치비 등(13억원)

지원

- 사립유치원 수업료 50% 지원(3개월 76억원)
- 지자체 협력 지원
 - 쌀꾸러미(101억원) 및 교육재난금 지원(1인 10만원)
 - 특별장학금 지원 중고생 2,000명(1인 50만원, 총 10억원)
 -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급식 배식원, 방과후 학교강사)

사진으로 보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코로나19 대응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상황관리 예방 대책반 운영(2020.1. ~ 3.)
(경계 단계, 단장 교육감)



비상대책본부 운영(2020. 4. ~)
(심각 단계, 본부장 교육감)



코로나19 대응 학교안전지원 TF팀 구성
(2020.3.)



방역물품비 지원
(2020.3.)



열화상카메라 지원
(2020.3.)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학원 방문 점검
(2020.2.~)



기숙사 및 운동부 합숙 운영교 학생 대상
전수검사 실시(2020.6.)



학교 내 임시 선별진료소 설치 및
전수검사 실시(2020.5.)



코로나19 예방 교육자료 제작·배포
(2020.4.)



등교수업 안정 지원을 위한 교육감 24시간 비상근무 실시(2020.5.)



학교 내 코로나19 대응 모의훈련
(2020.4)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한
10개 군·구청 업무협약 체결(2020.6.)



코로나19 꼼짝 마!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급(2020.6.)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 준비
(2020.12.)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방역 점검
(2020.12.)

사진으로 보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코로나19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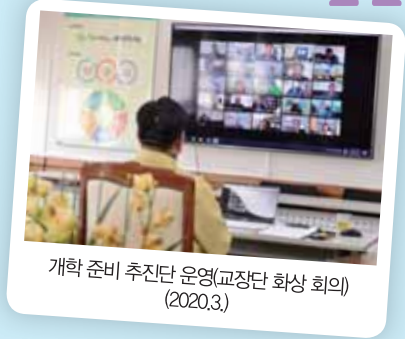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긴급 돌봄교실 운영 점검
(2020.2.)



학교 급식실 점검
(2020.3.)



개학 준비 추진단 운영(교장단 화상 회의)
(20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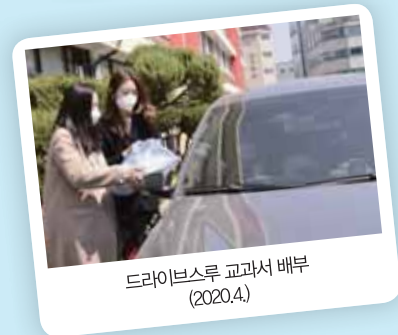
코로나19 대응 원격교육지원단 화상 간담회
(2020.3.)



학생자치 네트워크 학생과 화상 간담회
(2020.3.)



온라인 수업 점검
(20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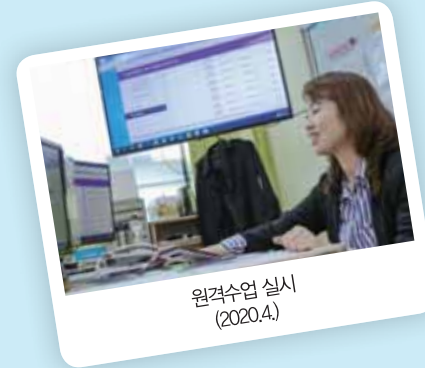
드라이브스루 교과서 배부
(20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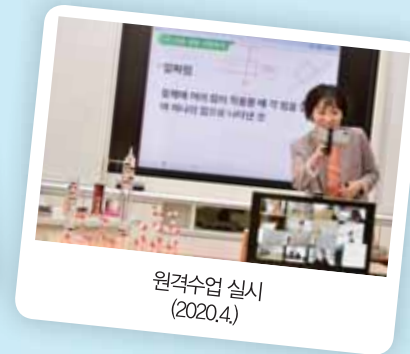
원격수업 교원 역량강화 연수
(20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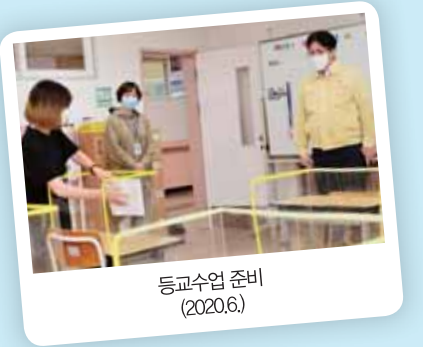
온라인 개학식
(2020.4.)



원격수업 실시
(2020.4.)



원격수업 실시
(2020.4.)



등교수업 준비
(2020.6.)



코로나19이후 인천미래교육에 대한 질문과 상상
(2020.6.)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된 교육 패러다임과
AI를 접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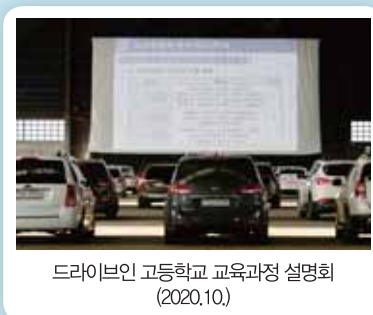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육에 관한 포럼 및 간담회
(2020.7.)



원격수업 지원 고도화를 위한 사이버대학 방문
(2020.8.)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협약 체결
(2020.9.)



드라이브인 고등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2020.10.)

“ 덕분에 이겨낸 일 년,
희망으로 피는 새봄 ”

인천광역시교육감 조성훈





학생 자치가 온라인에서, 그리고

제22회 인천과학대제전

에서 활짝 피다!

노희진 | 선인고등학교 교사

학생운영위원이 상상하고 만들어 낸 온라인 과학 축제 ‘제22회 인천과학대제전’

코로나19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만남의 모습도 변화시켰다. 올해 찍은 사진과 작년에 찍은 사진은 마스크 착용 여부로 쉽게 구분되니 말이다. 이러한 일상의 변화에 아무리 익숙해졌다고 했지만, 스무 해를 넘게 이어져 왔던 대규모의 과학 축제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어려웠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인천과학축제의 모습은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았으나 우리 아이들은 교사인 나와 달랐고, 온라인으로 25일간 진행된 「제 22회 인천과학대제전」을 탄생시켰다. 제22회 인천과학대제전 학생운영위원들은 「온라인 과학 축제」를 감히 상상해 내었고, 학생과 시민들이 온라인에서도 과학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나는 6개월 동안의 긴 시간 속에서 학생운영위원들과 함께 하면서 짜릿하고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경험과 느낌을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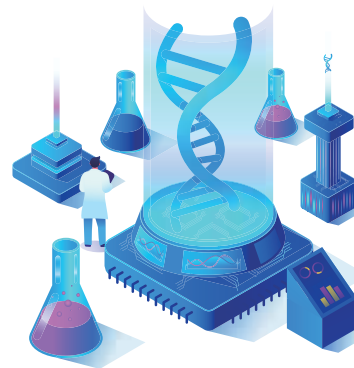
상상하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듯 그려낸다.



〈학생운영위원회 위촉장 수여〉

‘온라인으로 어떻게 과학 축제를 할 수 있을까?’ 막막하기만 했지만, 인천과학대제전의 주역인 학생운영위원을 모집하였다. 아이들이 바쁠 텐데 많이 지원할까? 오프라인도 아니고 온라인 운영에 관심이 있을까? 등은 걱정일 뿐이었다. 많은 수의 고등학생들이 당당히 온라인 과학 축제를 운영할 계획을 제시하며 지원 신청을 하였다. 선정된 학생운영위원들은 각기 다른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마스크를 쓰고 모여 공동의 운영 계획을 만들어 갔다.

학생운영위원들은 초·중·고 과학동아리, 환경동아리, 발명동아리의 체험부스를 온라인으로 꿈꾸었고,



그 구체적 방법까지 서로 의견을 제시하며 같이 고민하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갔다. 각 학교의 동아리들이 ‘체험꾸러미’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인천의 학생과 시민이 가정과 학교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323개의 온라인 체험 부스 「동아리가 한다!」였다.

학생과 시민이 대면행사의 체험부스로 와서 다양한 실험과 체험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각 동아리들이 친구들과 가족, 시민 한 명 한 명의 체험을 위해 찾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말 멋진 상상이었다. 또, 이렇게 각 동아리들이 직접 찾아가는 느낌으로 온라인에서 체험 부스를 운영하면, 코로나19로 함께 활동함이 어려웠던 각 학교의 과학 동아리, 환경 동아리, 발명 동아리 활동에 활력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처한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온라인에서도 거침없는 상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아이들이었고, 이들은 그 자체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제22회 인천과학대제전 체험꾸러미 배포〉

알리대! 만나지 못하지만,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 함께하게 하다.

‘만나야 과학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을 텐데...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괴롭네요...’ 라고 하면서 학생운영위원들은 온라인으로 열리는 인천과학대제전에 인천의 학생과 시민이 모이게 하는 방법을 치열하게 고민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예고편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기존의 오프라인 행사에서 단순히 체험 부스의 제목과 강연 주제만 소개했던 안내 및 홍보 자료를 뛰어넘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다. 온라인에 「동아리가 한다!」의 약 300개의 체험에 대한 예고편을 미리 올려서 인천의 학생과 시민이 모이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다.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열정적인 모습이 대견했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학교와 동아리 사이의 교류를 넘어 인천 시민과 체험꾸러미를 통해 과학적 소통을 한 25일간의 축제였다.



〈제 22회 인천과학대제전 예고편〉





소통하다! 마주 앉아 있지 않지만, 서로 마주 보고 이야기를 나누다.

「3분간의 과학소통」은 실생활 속 과학 현상을 설명하면서 청중과 함께 소통하는 장이다. 학생운영위원들은 ‘들어줄 청중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하죠?’라며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고, 영상을 제작하여 단순히 시청만 하게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학생운영위원들은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을 찾고, 새로운 해결방법을 모색해 나갔다.

소통이 중요한 「3분간의 과학소통」만큼은 실시간 양방향으로 진행해보자는 합의를 이루었고, 실시간 방송 송출을 하며 댓글을 통해 청중과 호흡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는 아이들은 서로 협력하여 5번의 실시간 방송을 통해 인천의 학생과 시민들이 실생활 속 과학 현상에 대해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이 실시간 방송 송출 현장은 방송국 그 자체로, 매우 긴박했고 1초의 쉼도 없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스스로 찾고, 서로를 도우려고 했으며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에 서로에게 더 집중하며 빠르게 문제 해결하며 대처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 모두가 처음으로 해 보는 실시간 방송 송출이기에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이 속에서도 자신을 알아가고 서로를 알아가며 자신과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다.



배우다! 과학을 통해 ‘찐~ 인생’을 경험하고 성장한다.

우리 학생운영위원들은 현재에 발을 딛고 미래를 살아갈 우리의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마다의 ‘삶의 힘’이 필요하다.

학생운영위원들은 「제22회 인천과학대제전」의 「학생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힘’이 자랐음을 느꼈다고 한다. 또한, 함께 하는 큰 축제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해야 할 것’을 고민하며 자신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 경험했다고 한다.

상상 속으로만 그칠 수도 있고, 실현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깊은 감동을 느꼈으며 아이들이 「제22회 인천과학대제전」의 중심에 서서 주도적으로 상상하며 기획하였고, 친구들과 함께 구현해가면서 ‘찐~ 인생’을 배우고 성장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실시간 양방향 화상체험부스〉

인천영종초	영종중
인천원당고	제물포고
인천신현고	



〈3분간의 과학소통 진행 과정〉



〈과학수다 제작 장면〉



〈소규모참여형 체험부스 운영〉

우리가 함께 만든 인천과학대제전 학생운영위원 활동이야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에서 ‘이렇게 좋은 경험을..’로 생각의 전환점이 된 제22회 인천과학대제전

윤진경 | 인천신현고등학교 학생

9명의 팀원과 한 팀이 되어 제22회 인천과학대제전의 홍보 및 축하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제작까지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여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모든 활동을 대체하게 되었으나 이번 경험으로 오프라인 못지않게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힘들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기도 할만큼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렇게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과 멋진 결과물을 함께 만들어낸 팀원들과 선생님께 감사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사이얼(SCR: Science Carnival in the Room) 챌린지를 만들며..

김유하 | 인성여자고등학교 학생

중학교 때부터 3년 동안 꾸준히 과학대제전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올해 이렇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니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먼저 우리 분과는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1탄-과대전(과학대제전) 3행시, 2탄-덕분에 챌린지, 3탄-종이컵 챌린지를 기획하였고, 그 중 종이컵 챌린지를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땀 한 땀 만들어낸 챌린지 홍보 영상 완성 작과 온라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진행한 분과 친구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과정은 제22회 인천과학대제전의 주인으로서의 뿌듯한 성취감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학생운영위원으로서의 배움과 주인됨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3분간의 과학소통 사회를 보다

홍지아 | 인명여자고등학교 학생

코로나19로 인해 과학대제전이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다보니, 전반적으로 운영방식 등이 전과는 다른 것을 알게 되었고 첫 온라인 과학대제전의 색다른 방식을 직접 진행해보고 싶었습니다.

온라인 과학대제전의 사회자를 맡으며, 이 자리가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사회자를 지원한 만큼 매초마다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회자를 하면서 여러 과학 원리를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되었고, 여러 아이디어를 얻어 보람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숨쉬며 경험한 인천과학대제전

권하리 | 인일여자고등학교 학생

저는 과학대제전 운영위원회도 처음이었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했던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성공리에 과학대제전이 마무리 된 것 같아 학생운영위원으로서 뿌듯하고 의미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참여 학생들로부터 ‘과학대제전이 취소될 줄 알았는데 온라인으로 진행돼서 다행이다’, ‘색 달랐다.’라는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신기하고 재미 있는 경험을 남겨주었고, 또 하나의 과학대제전의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제 22회 과학대제전은 막을 내렸지만, 우리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은 계속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제전 통~신! 발빠르게 이모저모를 알리다!

서지영 | 인천논현고등학교 학생

드디어 25일간의 인천과학대제전이 끝이 났습니다. 먼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인천과학대제전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 하셨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대제전 통신을 맡은 우리 팀은 홍보를 위해 카드뉴스라는 홍보 방식을 선택하여 각 주제의 적합한 참가 동아리와 일정을 넣어 카드 뉴스를 제작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과학대제전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참여 학생과의 인터뷰와 체험 현황 등에 대해 조사 후 카드 뉴스를 만들어 현재 상황에 대해 홍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큰 행사에 팀장으로 참여하게 되어 부담이 컸던 만큼 많은 고민을 통해 팀원을 이끌어 갔고, 10명의 팀원 모두가 열정을 보이며 맡은 일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에 진정한 협동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천과학대제전에서 얻은 소통하는 마음과 협력하는 자세를 통한 팀워크가 중요함을 배우면서 이번 계기로 얻은 소중한 경험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생태적 모두살이

권혁미 | 창의인재교육과 장학사

지난 9월,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태환경교육 학생 동아리, 자원순환 교육 학생동아리 친구들이 모여 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 공감토크쇼를 진행했다. 이 토크쇼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기후위기 비상을 선언하는 자리도 만들었다.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린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을까?

관련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0 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 공감콘서트(초등 or 중등)



생태환경교육 실천학교와 학생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인성여자중학교

인성여자중학교는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이라는 캠페인을 시작으로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교내에서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물병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명과 함께 생태적 삶에 대해 실천해 나가기 시작했다. 교직원이 먼저 하는 실천을 위해 기후위기에 대한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에 대한 사제 동행 워크숍, 여름방학 환경캠프 등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동참하는 작은 지구, 인성여자중학교의 생태전환적 학교 문화를 만들었다.

학교의 문화 뿐 아니라 학교 숲도 달라졌다. 학교 숲은 학생들의 생태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의 장이다. 우리 학교에 살고 있는 나무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부터가 자연과의 공존이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학교에 있는 나무이름을 조사하고 1인 1나무 이름표를 우드버닝으로 만들어 나무마다 이름표를 달아주었다.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많이 온 날이 되면 어김없이 학생들은 자신이 이름표를 달아준 나무가 무사한 지 살피러 나간다. 마치 어미새가 아기새를 보살피듯이... 관심은 사랑의 시작이고 사랑은 상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무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생태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킨다.



학교나무 이름표 달기



새집 달아주기



자원순환교육 실천학교와 학생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인천소래초등학교

인천 소래초는 가장 기본이지만 지키기 어렵고 다함께 하는 “비행분석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있다. 비우고, 행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 분리배출을 교실을 시작으로 학교 내 모든 곳에서 실천하고 있다. 또한 가정과 연계하여 가정 쓰레기 배출현황을 조사하고 플라스틱 제품 사용하지 않는 플라스틱 제로 운동을 함께 전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배출하게 되는 재활용 용품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인천소래초는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재활용품을 다양한 학습활동의 재료로 활용하고 있었다.

플라스틱 컵뚜껑과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응원 도구 디자인하기, 커피찌꺼기를 활용하여 커피 점토 화분 제작하기, 페타이어 화분, 페트병 전구와 같은 자원순환을 위한 발명아이디어 산출하기 등등 자원순환을 위한 학습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5, 6학년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제품 관련 기업이 되어 보기 프로젝트를 통해 창의적인 자원순환·업사이클링 아이템 제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가능발전분야의 진로탐색 활동까지 지원하고 있다.

6학년 오○현 학생

“버려지는 나무를 활용해 방문 명패 만들기 활동을 했는데 압화된 꽃을 붙여 나무에 생기를 더하는 활동이 재미있었다. 폐기물로 버려질 뻔했던 나무를 내 손으로 예쁘게 디자인하니 새롭게 나무가 탄생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 나무를 포함한 환경을 더 깨끗하게 보존하고 아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6학년 윤○호 학생

“우리가 함부로 자원을 사용하면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인간에게 그대로 돌아온다고 생각했다. 학생으로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사용하여 배출된 쓰레기는 정확한 방법으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성여자중학교와 인천소래초의 학교구성원 모두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생태전환적 삶”을 실천하는 모습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게 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다. 이러한 변곡점들을 시작으로 하여 기관에서 실시한 생태환경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를 나눠보고자 한다.

교육지원청에서 올 한해, 그 지역만의 특화된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보자.

교육지원청별 특화된 생태환경 프로그램

남부교육지원청은 섬과 바다라는 소중한 해양생태자원을 중심으로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무엇보다 인천의 대표적 해양자원인 서해 5도 지역의 지질구조와 섬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온라인으로 섬의 지질 구조와 문화에 대해 배우고 영종도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장봉도를 찾아가 해안가에 있는 지질 구조 탐구하였으며 섬문화 홍보 엽서를 제작하면서 인천만의 해양자원인 섬에 대한 뿌듯함과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게 하였다. 또한 한번의 체험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24명의 학생들은 인천섬문화기자단이 되어 해양상태



자원 순환 체험 - 방문 명패 만들기



업사이클링 아이템 - 가방 만들기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다.

남부교육지원청의 해양생태자원에 대한 사랑은 이 뿐만이 아니다. 덕적도의 중학생들이 대청도 일대의 지질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서지역 지질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섬에서 이웃섬으로의 경험 확대를 지원하였다.

남부 관내 중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는 생태환경과 인문환경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월미바다열차와 함께 떠나는 생태탐방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월미바다열차를 타고 월미도 일대 생태를 탐방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인천 개항문화, 6.25의 아픈 역사까지 함께 느끼고 생각할 수 있어 우리 고장의 생태, 역사, 인문에 대한 융합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남부교육지원청 주관 섬문화기(지)단 대청지역 지질체험학습



남부 관내 1~2학년 중학생 대상 월미바다 열차 생태환경체험학습



북부교육지원청은 ‘북부, AR이 안내하는 굴포천 생태탐험’이라는 주제로 코로나 시대에 한계를 뛰어넘는 온라인 개별 생태환경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안내된 길을 따라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증강현실을 통해 미션을 수행하며, 다음 장소로 안내되는 AR앱을 개발하였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역량 함양은 물론 우리 고장의 굴포천의 생물 다양성과 환경오염에 대한 주제탐구를 내실있게 진행할 수 있었다.

AR과 앱 활용하여 굴포천의 특징위치 7곳에서 미션 수행하고 해당 결과를 온라인 탑재하면 방을 탈출할 수 있는 게임 형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AR앱은 굴포천 소개, 굴포천 식생, 굴포천 어벤저스 퀴즈, 굴포천 생물 기록, 굴포천의 의성어 동시짓기(padlet 활용, 정보공유), 굴포천의 옛 이야기, 채수방법 설계하여 오염도 측정하기, (생태놀이) 나뭇잎배 만들어 띄우기 등의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 가족팀 98명과 중학생 9명이 참여하였으며 코로나로 지쳐있는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직접 생태를 체험하면서 가족애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깊다.



북부교육지원청 주관 AR이 안내하는 굴포천 생태탐험 체험

체험에 참여한 학생은 “굴포천에 서식하는 수양버들, 왜가리, 백로, 검둥오리 등 도심 속에서 발견해서 좋았고, 증강현실과 실패를 해도 다시 도전하도록 구성된 방탈출 프로그램이 흥미로웠다. 또한 매일 보던 굴포천의 역사를 알게 된 것이 뿌듯했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북부, AR이 안내하는 굴포천 생태탐험’을 체험해 보고 싶은 분들은 ‘http://bit.ly/생태탐험소개’를 방문하면 체험을 맞볼 수 있다.

동부교육지원청도 ‘우리동네 승기천에서의 하루’라는 미션 중심 AR 생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우리 하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동부교육지원청 주관 우리동네 승기천에서의 하루 체험(AR 생태프로그램)

초·중 10개 동아리 총 200명의 학생들이 함께하였으며 이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AR 증강현실을 통해 승기천의 사계절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실제 수질탐구와 승기천의 새관찰을 하면서 환경을 지켜야겠다는 결심을 하였다’라는 소감을 말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https://www.bit.ly/승기천의하루’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생태환경 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기후위기 극지연구소에서 느껴봐, 극지연구소 체험이라는 주제로 동부 관내 중학교 동아리 학생 40명이 참가하는 극지연구소 체험을 실시하였다.

올 10월에 운영된 이 프로그램은 극지연구소에 방문하여 진행되었으며 빙하 관련 연구와 빙하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와 상황 통제실 방문을 통한 아라온호의 출항 일정과 북극, 남극의 온도, 습도, 풍속, 압력, 날씨 등의 관계상황 관람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에게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왜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기후온도 상승을 억제해야만 하는 지’를 가슴 깊이 공감하고 지구인의 1인으로써 생태전환적 삶에 동참해야한다는 절박감을 느끼게 하는 활동이 되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서부 생태시민참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1인 미디어 환경지킴이 콘텐츠 제작, 서부 가족과 함께하는 맑은 공기 확산 영상 챌린지, 자연과학을 품은 인문학 캠프, 환경정책 원정대 등의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 중 특히 ‘환경정책 원정대’ 프로그램은 서부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 정책제안서를 작성하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기후위기, 생태환경, 그린 에너지 등에 대해 알고 지속적으로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생태환경 감수성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서부교육지원청 주관 환경정책 원정대 프로그램 운영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지속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환경문제를 고민해 보고 해결 방법을 찾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푸른 미래를 그리는 이런 학생들이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적색이 아닌 ‘그린색’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였다.

강화교육지원청은 푸른미래강화교육축전을 통해 강화의 생태환경·평화·역사교육의 3개테마를 중심으로 온라인부스를 운영하였다. (‘푸른미래강화교육으로 농어촌교육의 부활을 꿈꾸다!’ 편 참고)

지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주변을 보면 푸른 나무와 하늘이 너무나 당연하게 내 옆에 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이러한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2019년 우리 대한민국이 제안하여 최초로 UN에서 채택된 ‘제1회 푸른 하늘의 날’이 올해 9월 7일이였다. 푸른 하늘도 기념일로 지정될 만큼 이제는 푸른 하늘도 우리가 지켜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생태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 세대조차도 푸른 하늘을 볼 수 없을 것이다. 학교에서만이라도 일회용품 사용 자제, 가정에서는 바른 분리수거, 출퇴근과 등하교는 대중교통 이용, 급식은 먹을 만큼만 받기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오늘부터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 오늘부터 1일!



2020 제5회 푸른미래 강화교육으로 농어촌 교육의 부활을 꿈꾸다!

조민선 | 강화교육지원청 장학사

강화교육지원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5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유일하게 강화 생태환경·평화·역사 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화 생태환경·평화·역사 교육지구는 민선 제3기 도성훈 교육감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강화의 생태·평화·역사 교육의 3개 테마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을 지닌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양질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통한 강화의 학력인구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강화교육지원청의 역점 사업입니다.

푸른미래강화교육축전은 강화 지역 인적·물적 인프라와 연계한 생태환경·평화·역사 교육의 3테마를 중심으로 푸른미래강화교육과정 운영 평가 및 학교 간 교육과정 운영 내용을 공유하고, 강화 마을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의 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축제의 장으로 2016년에 시작되어 올해 제5회 축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학교에서는 체험 학습이나 외부 전문 강사를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지역 내 체험기관 및 마을은 학교 단체 체험학습이 운영되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시공간을 초월한 안전한 체험환경을 조성하고 강화의 우수한 교육 환경을 홍보하여 학생들이 지역을 사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푸른미래강화교육축전 온라인 플랫폼(www.푸른미래강화교육축전.com)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에서 개발한 푸른미래강화교육축전 온라인 플랫폼은 강화 지역의 13개 읍·면 단위 체험처와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체험 프로그램별 영상과 설명서, 교육키트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강화 자유학년제와 감비고차 대회, 빛깔담은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프로젝트 등 강화교육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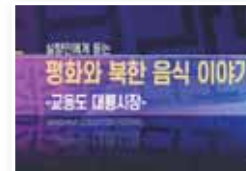


푸른미래강화교육축전 온라인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강화 지역 13개 읍·면 단위 체험 부스

기존의 축전이 한 장소에 모여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전시 부스 체험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이번 제5회 푸른미래강화교육축전의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강화의 생태·평화·역사 3주제별 특성에 맞는 11종의 교육동영상을 제작한 점입니다.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이자 강화군의 군조인 저어새, 강화의 전통 식물인 소창과 고려 화문석, 세계유산 강화 고인돌, 한강하구평화중립수역, 승천포이야기, 교동 대룡 시장에서 만나는 실향민 이야기 등 11개 주제의 교육동영상을 생태환경·평화·역사 교사연구회와 학생동아리, 지역주민이 함께 기획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이번에 제작한 교육동영상을 강화 관내 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 학교에서 강화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활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생태 환경 프로젝트



평화 이야기



강화 역사탐험대

제5회 푸른미래강화교육축전의 세 번째 특징은 강화 체험 꾸러미의 개발·보급입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지역의 마을 체험처, 지역 주민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푸른미래강화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는데, 이번 축전을 통해 고려왕실등 만들기, 강화소창 염색, 강화 문화제 미니 어저, 강화 고추장, 인삼 기르기 등 생태환경·평화·역사 주제별 체험이 가능한 18종의 체험꾸러미를 개발하였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이번 축전 대상인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2,725명의 전 학생이 9종의 공용 체험 꾸러미를 제공받아 체험을 하고, 개별 신청을 통해 희망하는 체험꾸러미를 지급받아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화 생태환경·평화·역사 교육키트 만들기

이번 축전의 네 번째 특징은 '내가 만들어가는 강화 생태환경·평화·역사 교육지구 토론회'입니다.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강화 생태환경·평화·역사 교육지구를 운영하고자 동아리별 학생과 교사, 학부모, 시민 단체가 참여하는 유튜브 생중계 토론회를 개최하여 강화 교육 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은 향후 강화 생태환경·평화·역사 교육지구 운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강화 생태환경·평화·역사 교육지구 토론회



삶의 힘을 키우는 내가 사계절 ECO계절학교

김정은 | 내가초등학교 교사

내가초등학교 앞에는 평화로운 내가저수지(고려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물빛을 닮아 맑고 순수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물안개처럼 피어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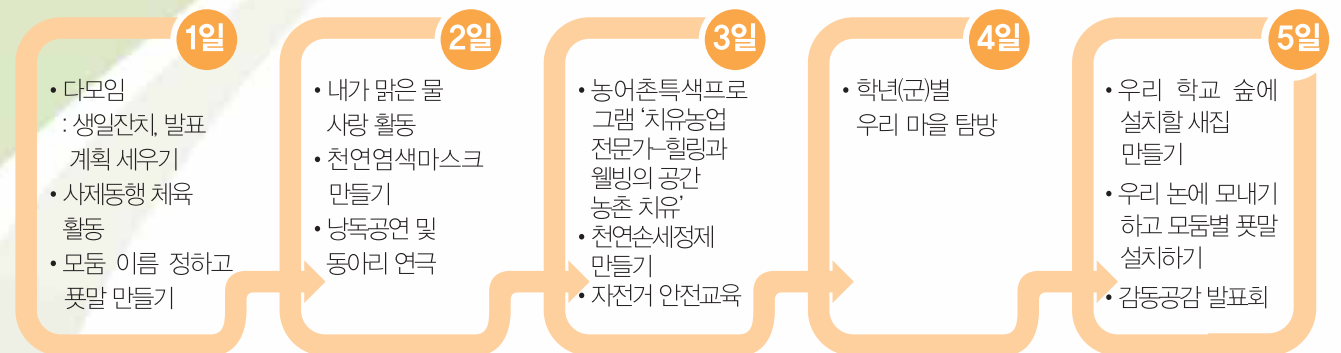
내가초등학교는 “행복배움학교 2.0 학교”로, 1기 행복배움학교 4년 운영 후, 종합평가를 통하여 재지정이 승인된 행복배움학교 2기 학교입니다.

내가초등학교의 계절학교, <ECO 계절학교>에 대해 아시나요?

내가초등학교의 <ECO 계절학교>은 자연환경 및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계절학교의 이름입니다. ECO 계절학교의 ‘에코’란 환경을 뜻하는 ECO와 메아리를 뜻하는 ECHO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태환경·평화·역사·문화와 연계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하여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의 결과를 널리 퍼뜨린다는 의미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을 통해 <봄-여름-가을-겨울> 4번의 계절학교가 운영되며, 계절의 특성에 맞는 활동들이 1년간의 장기 프로젝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초등학교는 주제중심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육과정의 자율적·창의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을 신장시키고자 주제별 ECO 계절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봄 ECO 계절학교 ‘마을과 함께하는 히로애락’



내가초등학교의 봄 ECO 계절학교는 “마을과 함께하는 히로애락”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날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모듬 이름을 정하고 풋말을 만들며 서로 의사소통하고 창의적 사고를 확산하며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일차에는 학년군별로 학교 근처에 있는 내가저수지를 돌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활동을 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만든 천연염색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마을에 기부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배움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3일차에는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농·생명 산업분야의 미래 직업을 체험해보았고 4일차에는 우리 마을을 탐방하며 내가 사는 마을의 인문, 자연환경, 동식물 및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애郷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5일차에는 감동 공감 발표회를 통해 모듬별로 협의하고 체험 활동의 과정에서 느낀 배움 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히로애락을 맛보았습니다.



모듬 이름 정하기



내가 맑은 물사랑 활동



우리 학교 숲 새집 만들기



면마스크, 천연손세정제 만들어 내가면 기부



모내기 체험

여름 ECO 계절학교 ‘우리 마을을 녹색으로 입히다, Green Plugged-Ganghwa!’



내가초등학교의 여름 ECO 계절학교는 “우리 마을을 녹색으로 입히다, Green Plugged-Ganghwa!”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1일차에는 봄 ECO 계절학교부터 연습해온 자전거를 수준별로 나누어서 학교 운동장과 내가저수지에서 타보았습니다. 전 교직원, 학생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사제 간의 공동체 문화 의식을 확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름 ECO 계절학교는

새활용, 업사이클링이 주제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헌 티셔츠를 이용하여 업사이클링 티셔츠도 제작해보고, 페트병을 활용하여 생활용품인 조명도 만들어보았습니다. 또한, 커피가루를 이용해 그림도 그려보고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업사이클링 가랜드도 만들어보았으며 다 쓴 페트병으로 저금통도 만들어보았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생활 속에서 무심코 버릴 수 있는 것들을 새롭게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웠고 자연의 소중함과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업사이클링 티셔츠 만들기



업사이클링 조명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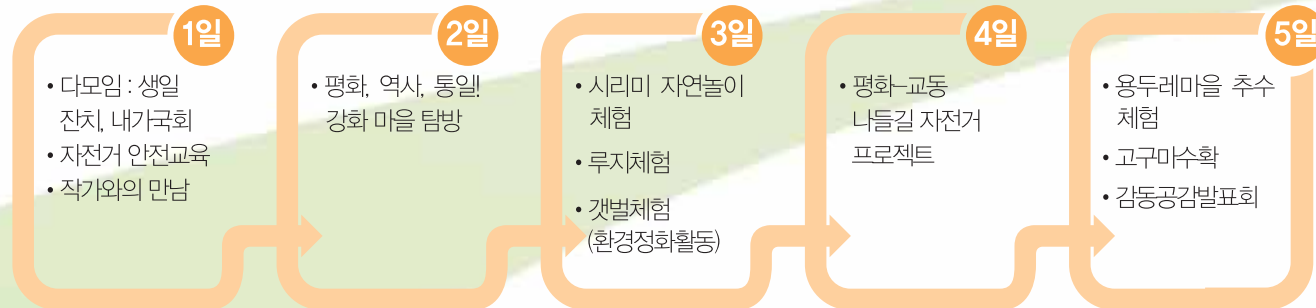


커피가루를 이용한 그림그리기



커피가루를 이용한 그림그리기

가을 ECO 계절학교 ‘내가 계획하는 평화·역사·문화 기행’



내가초등학교의 가을 ECO 계절학교는 “내가 계획하는 평화·역사·문화 기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을 ECO 계절 학교를 통해 평화의 의미를 깨닫고 마을 연계 활동과 체험들을 통해 강화의 역사와 문화를 느끼고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리미자연체험장, 루지체험, 갯벌체험 등 강화의 다양한 문화를 탐방하고 용두레 마을에 가서 1년 농사의 마무리인 추수체험도 진행했습니다. 4일차에는 실향민이 많이 사는 지역이자 북한과의 거리도 매우 가까워 평화와 통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교동도로 향했습니다. ‘교동나들길-자전거 프로젝트’에서는 교동도 구석구석을 자전거로 돌아보며 북한식 만두도 만들어 먹고 철책선도 가까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평화, 역사, 통일 강화 마을 탐방



시리미 자연놀이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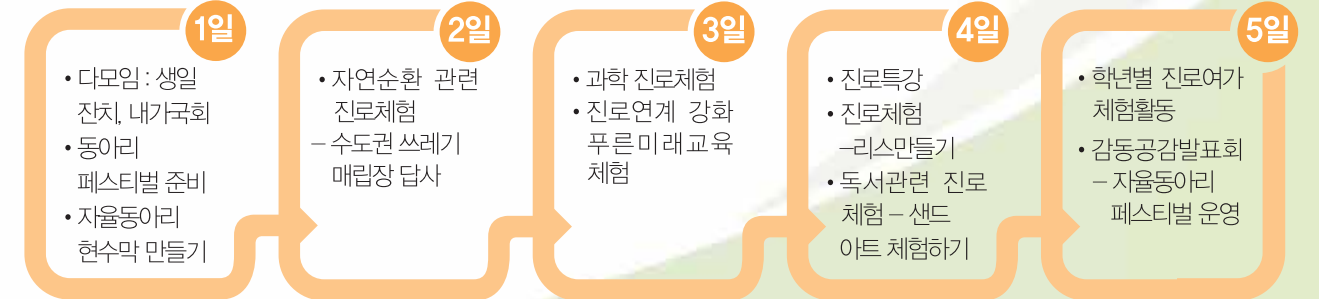


용두레마을 추수체험



루지체험

겨울 ECO 계절학교 ‘여가를 진로처럼, 진로를 여가처럼’



내가초등학교의 겨울 ECO 계절학교는 “여가를 진로처럼, 진로를 여가처럼”이라는 주제로 12월 14일(월)~18일(금)에 진행 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여가체험과 진로체험을 위해 레포트 체험장에서 승마체험과 서바이벌 게임, 줌라인 등을 체험 할 예정입니다. 겨울 ECO 계절학교의 마지막 날에는 자율동아리 페스티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율동아리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활동 계획을 세워 스스로 활동하는 학생자치 활동의 꽃으로, 이날 모든 자율동아리는 자신들의 활동결과물을 부스운영을 통해 보여주기도 하고 다른 동아리의 부스활동을 체험하며 배움이 삶이 되고 삶이 배움이 되는 살아있는 교육을 실천할 예정입니다.

내가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표정은 참 밝습니다. 학교에 오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바라보기만 해도 참 행복합니다. 내가초등학교에 발령받은 지 1년차 교사인 저는 내가초등학교의 교육공동체, 학생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사계절의 시간들이 참 행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변해버린 것만 같은 일상이지만, 내가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으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마을과 협력하여 함께하는 교육공동체가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내가 최고!

관련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천 강화초 내가초교의 역주행, ECO 스쿨은 무엇 : 인천스쿨그램 9화)



행복배움학교 6년, 도림을 기록하다

글 · 사진 | 인천도림초등학교

자연친화적인 좋은 환경과 열정적인 교사들의 의지로 2015년 인천형 혁신학교 행복배움학교로 지정, 2019년 재지정을 받으면서 어느 학교보다도 행복배움학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기는, 인천도림초등학교입니다. 우리학교는 교사학부모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학생의 행복한 배움을 최우선으로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행복배움 학교 6년, 도림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연못 생태교육 - 비오톱 생태 탐험대

비오톱(Biotop)은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물 서식공간을 말한다. 우리 학교에도 비오톱이 있다. 우리 학교 연못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을까? 뜰채로 연못물을 아이들과 함께 떠보았다. 개구리밥부터, 뒷다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올챙이, 실잠자리 유충, 잠자리 유충 그리고 삼각산골조개까지 많은 생물 종이 뜰채 위에 나타났다. 특히, 삼각산골조개는 학교 연못에서 보기 힘든 생물이다. 아마도 오봉산에서 왔거나 연못을 만들 때 팔려 들어간 모양이다. 그렇게 귀한 삼각산골조개와 뜰채에 떠오른 다른 생물들을 연못물과 함께 통에 담아 연못 옆 정자에 앉아 아이들과 함께 관찰했다. 실잠자리 유충을 손등에 올려놓고 보는 아이들 눈빛이 생동감 넘친다. 올챙이의 뒷다리도 보고 수생식물인 부들도 만져 보았다. 교실 밖 비오톱 생태수업은 아이들을 들뜨고 신나게 만든다. 직접 겪지 않으면 알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것이다.



짧은 수업시간으로도 아이들의 배움은 강렬했다. 학교에 연못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이제 아이들은 연못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아이들이 2년을 넘게 다니며 보았던 연못이지만, 이제 연못은 완전히 새롭다. 생태적 감수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누가 돌이라도 던질까 혹시나 만났던 생물들이 다칠까봐 걱정을 한다. 자연의 변화에 민감해진 것뿐만 아니라, 존중하고 보호도 하게 된 것이다. 바로 생태적 감수성이, 생태교육이 중요한 까닭이다.

가끔은 길을 잃어도 괜찮아 - 학교 밖 탐험

학교 밖 탐험은 도림초만의 특별한 체험학습으로 학생이 주인이 되어 탐험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스스로 만들어간다. 기존 현장학습이 잘 짜여진 단체 패키지 여행이라면 학교 밖 탐험은 소규모 자유여행인 셈이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각자 역할을 맡아 활동할 수 있게 4~5명 정도의 소규모로 구성하고, 5학년 2학기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를 테마로 사회 시간, 국어 시간, 창체 시간을 활용하였다. 모둠 친구들과 함께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신문을 만들고 교실 뒷편에 게시하여 서로 탐험할 목적지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을 살펴봄으로써 사전 지식을 쌓을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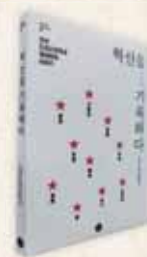
학생들과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탐험을 함께 도와주실 학부모 도우미를 모집하였다. 여러 해 동안 이어져 온 학교의 전통이기에 기꺼이 도움을 주셨다. 학생들이 앞장서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길을 떠나면 교사와 학부모는 뒤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며 안전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보는 역할만 한다.

드디어 학교 밖 탐험을 떠나는 날! 버스를 타고 출발하는 아이들의 얼굴에 설렘과 호기심이 보였다. 시행착오 끝에 목적지에 도착한 아이들은 사전에 조사했던 문화유산을 실제로 접하며 눈이 반짝거렸다. 문화재에 대한 설명을 읽고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은 검색을 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놓치지 않고 배우려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학교 밖 탐험을 다녀온 뒤 각자의 경험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발표회를 준비하였다. 모둠별 탐험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고 자신이 방문한 곳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발표하였다. 발표 후 서로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며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장소에 대해서도 새로이 알게 되었다.



아이들의 모험담은 발표회 이후에도 끊이지 않았다. 쉬는 시간, 중간 놀이시간까지 서로 모여 길을 잃고 헤맸던 일, 계획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우연히 만나게 된 멋진 일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기존의 현장학습과는 다른 학교 밖 탐험만이 가진 힘이 느껴졌다. 어디에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정해진 대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장소를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하여 자유롭게 떠난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은 아이들에게 의미있는 경험, 즉, '삶의 힘'이 될 것이다.

전학공(전문적학습공동체) 날개를 달다 - 혁신을 기록하다.



“책을 만들고 싶다! 우리의 이야기를 써 볼까? 도림을 기록해 볼까!”

학년 중심의 전학공에서 벗어나 주제 중심의 전학공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도림의 책 만들기' 프로젝트는 9명의 동료 교사가 의기투합했다. 우리 학교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또 도림의 교육과정을 다른 학교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보람이 있을까!

도림을 기록하다 보니 학교를 떠난 초기의 행복배움학교 구성원들의 글과 경험도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들의 생생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초기에 얼마나 큰 노력을 필요로 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때의 열정을 들으며 가슴 떨려 했고 뭉클함이 몰려왔다.

<혁신을 기록하다 - 인천도림초등학교 행복배움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의 기록이 우리를 되돌아보며 미래를 계획하는 큰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배움에 나이가 필요해?

- 물음표(?)를 느낌표(!)로 -

글·사진 | 학력인정 남인천중·고등학교

‘학교’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이야기꽃이 가득 핀 교실과 한바탕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그리고 그곳을 가득 채운 아이들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이렇듯 학교라고 하면 흔히 어린 학생들만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 “내 나이가 어때서!”를 외치며 오로지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교실과 운동장을 가득 채운 만학도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지역에 이런 곳이 있다고? Yes!

학력인정 남인천중·고등학교는 인천 최초이자 유일한 성인학교입니다. 올해로 36살이 된 우리 학교는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환경에 처한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1984년 윤국진 교장 선생님께서 자신의 가정집을 개조하여 첫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00년도에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성인 교육을 정식으로 인가받아 국가에서 학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1년 3학기제 평생교육 학교가 되었고 현재까지 약 15,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런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Wow!

우리 학교는 교육부에서 정한 정규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성인 학습자의 실정에 알맞게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국어, 영어, 수학뿐만 아니라 컴퓨터, 중국어 등의 여러 교과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러 가지 교내외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 교과서로는 얻을 수 없는 다양한 경험도 하고 있습니다. Z세대에 뒤지지 않는 열정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우리 학교 성인 학생들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TIP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교육감이 이를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31조) 현재 인천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남인천중·고등학교가 유일합니다.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 Good!

올해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고령의 학습자가 많은 우리 학교의 특성상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코로나 초기부터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교과서 배부 및 원격교육 학습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최소화했습니다. 등교 수업 이후로는 매일 아침 체온 측정과 교실 내 가림막 설치 후 주기적인 방역을 통해 감염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여 여러 콘텐츠를 활용해 학생들과 소통하며 학생들의 심리 방역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배움에도 때가 있다고? No!

지금도 약 천 여 명의 학생들이 배움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학교라는 공간에서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나이에 배워봤자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에 우리 학생들은 평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늦게 핀 꽃이 더 아름답다.’라는 말처럼 늦게 배움의 길을 걷는 학생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2의 인생을 펼쳐려는 만학도! 인천에만 58만명!

새마음
새출발

학력인정 남인천중·고등학교는

2021학년도 신입생 학생모집 중!

코로나19 시대에도 꺾이지 않는 배움에 대한 갈망~

- (1) 원서접수는 2021년 3월 입학전까지 선착순 모집 마감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 (2) 모집인원은 중학교 주간4학급, 야간2학급 총6학급, 고등학교 주간4학급, 야간2학급 총6학급 총12학급입니다.
- (3) 원서접수 창구는 본관 3층 교무실(☎032-722-1311~4)이며, 되도록 방문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는 월~금, 오전 9시 ~ 5시까지 (토, 일, 공휴일은 접수불가)

공감
'수업 나눔 모꼬지, 함께해서 참 좋다!'

'수업 나눔 모꼬지, 함께해서 참 좋다!'

제4회 인천 초등 수업 페스티벌, 랜선 축제 현장을 가다

김태인 |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이수현 | 인천갈월초등학교 교사
유철민 | 인천산곡북초등학교 교사, 유경윤 | 인천구산초등학교 교사

원격과 등교를 넘나들며 수업을 준비하고 운영해야 하는 선생님들의 어려움과 우울한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함께 했을까? 코로나19 상황에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선생님들은 어떤 수업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을까? 그 길을 뚝뚝 걸어 가며 선생님들은 어떻게 수업 나눔을 함께 할 수 있을까? 먼대면으로 다수가 모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랜선을 통해서 선생님들 간에 수업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온라인상에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제4회 인천 초등 수업 페스티벌'은 이런 고민들로부터 소소하게 출발했다. 모꼬지 답사를 위해 교사 TF팀을 꾸리게 되었고, 우리는 선생님들과 함께 5일간의 수업 나눔 모꼬지를 떠나기 위해 차곡차곡 프로그램들을 모아갔다. 여러 가지 아무말 대잔치 속에서 나왔던 소소했던 아이디어들은 살이 보태지고 다듬어지면서 우리들의 모꼬지 가방은 알차게 채워졌다.



★ 제4회 인천 초등 수업 페스티벌 4가지 테마로 구성

'교사, 수업을 묻다!-힐링특강', '나눔, 수업을 깨우다!-수업 성찰 협의', '도전, 수업을 배우다!-수업 실습 워크숍', '희망, 한 아이를 바꾸는 미술같은 시간-기초학력 사례 나눔'으로 구성되어 지난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다. 여기에 수업개선선도교사(6명) 수업영상 자율시청, 희망 나눔 온라인 갤러리, DJ가 쏜다!(교사 사연 뮤직박스-우리들의 별별별★이야기) 코너가 달달한 양념처럼 더해져 선생님들의 참여와 활발한 생각 나눔의 장을 마련하였다.

첫째 날 시작된 모꼬지는 교사 연주단 '우쿨렐레 창'이 힘차게 열어주었고, 이어서 반갑게 만난 군포 둔대초등학교 이영근 선생님의 교사 수업 힐링 강연은 아이들과의 글뚱누기 세상 속에서 삶을 가꾸며 마음 근력을 키워가는 참사랑 땀방 아이들과의 행복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랜선을 통한 페스티벌은 낯설었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첫째 날 모꼬지를 시작하였다.

수업 나눔 모꼬지?

'모꼬지'는 '같은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임'의 순우리말로, 교사들의 다양한 수업 방법, 사례 등을 공유하고 생각 나눔 성찰을 통해 더불어 성장해가고자 하는 수업 나눔의 장을 뜻함

★ 나눔, 수업을 배우다! 수업 실습 워크숍으로 더불어 성장

♥ 수현샘이 들여다본 모꼬지

2년 전 인천 초등 수업 페스티벌 부스에 시업서를 전시하고 시업서 쓰기 체험전을 열었던 일, 여러 부스들에 북적북적한 사람들, 선생님들의 발길로 가득 찼던 수업 사례 나눔들이 지금도 생생하다. 하지만 올해 제4회 인천 초등 수업 페스티벌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온라인으로 열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도전이라고 느껴졌는데 무엇보다 '수업을 배우다' 영역의 수업 실습 워크숍의 한 분과를 맡게 되니 부스를 열었던 때보다 더 긴장되고 무엇을 나눠야 좋을까 고민이 되었던 시간이었다.

이번 초등 수업 페스티벌에 참가하면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업을 공유하기 위해 수업 실습을 준비하는 다른 선생님들을 만나 질문을 나눌 때, 혼자 고민한 게 아니라는 것, 또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꿈틀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수업 실습을 진행하던 날, 실시간 온라인 강의에 들어오신 선생님들과 '내 안의 이야기를 꺼내다, 동시 온작품 읽기'수업을 진행했는데 공감해주시며 고개를 끄덕이고, 열심히 기록하고, 우리 학년도 혹은 우리 반도 한번 해봐야 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며 무척 힘이 났다. 그날 수업 실습 후에 나에게 한 조각의 용기를 더해 주신 어느 선생님의 후기글이다.

수업실습후기

너무 좋은 시를 실컷 읽어서 좋았어요. 연수 너무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고 아이에게 누구랑 살 건지 묻고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엄마라고 했다는 아이의 시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것을 공감하는 다른 아이도 그렇고……, 시 수업이 늘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고맙습니다.

가끔은 못나게도 통제하기 바쁘고, 공부 안 하는 것만 걱정하고 마음을 들여다 봐주지 못할 때도 많은 선생님이지만, 아이들은 그런 선생님에게 알아달라고 투정부리기도 하고 속마음을 털어놓고 의지하기도 한다. 이런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 늘 그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 아이 한 아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 모두 알고 손내밀기 어렵지만, 적어도 교사로서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못하는 이런 날들에 무엇을 해야하는지 고민하는 것이 나를 선생님이로 불러주고 사랑을 주는 아이들에 대한 내 할 일이라고 느껴진다.

이번 수업실습 워크숍은 수업 사례를 나누고 선생님들에게 체험을 안내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해가는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수업사례



인천 삼산초 박선경 선생님



인천갈월초 이수현 선생님



인천봉화초 정혜선 선생님

★ 코로나19로 그대들의 지친 마음을 녹여주는 DJ가 왔다!

♥ 철민샘이 들여다본 모꼬지



코로나19는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올 한 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 우울증(Corona blue)’이 다시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DJ가 쓴다! 교사 사연 뮤직박스’는 올해가 모두에게 처음 겪는 힘든 한 해였던 만큼, 선생님들의 다양한 사연을 받아 신청한 곡과 함께 읽어주며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인천석남서초등학교에 부스를 마련하고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해 원격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많은 선생님들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를 돌이켜보며 한 줄 한 줄 써 내려간 사연들로 채워진 시간은 함께 참여하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이날 나와 함께 진행을 맡아준 인천석남서초등학교의 김종완 선생님께서도 함께 공감하고 위로받는 가슴이 따뜻해졌다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뜻깊은 시간이었다. 마스크를 벗고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싶은 선생님의 작은 소망부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묵묵히 현장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지원하고 계신 선생님의 사연, 어머니가 교직의 대선배이어서 서로가 힘이 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해나간 사연까지……. 그중에서도 명예퇴직 후 10여 년 만에 학교로 복귀하신 선생님의 사연은 모두의 눈시울을 붉어지게 만들었다.

사연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늘어날수록 학년 선생님들은 아이들은 만나지 못한 채 콘텐츠를 제작하고 학습 꾸러미를 만들며 지쳐만 갔습니다. 그때 육아 휴직 선생님을 대신하여 기간제 선생님이 오셨고, 환갑을 훌쩍 넘으신 선배님은 젊은 후배에게 미안해하며 하나하나 처음부터 배워나가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며 새로운 일에 적응해나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때로는 마치 어머니처럼 학년 협의실 정리에 학습 준비물 정리까지 도맡아주셨습니다. 언제든 작은 일이라도 부탁드리면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명예퇴직 후 10여 년 만에 돌아오셨다며 마지막 출근하시는 날,

"이제 제 나이가 기간제도 못 한다니요. 그래도 내가 태어나 여태껏 가장 오랫동안 했었던 일인데 마지막이라니……. 다시 한번 보람있게 마무리해보려고 했는데 폐만 끼쳤네요."

눈물을 글썽이시는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6개월 동안 우리 후배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언제 어디서든 항상 건강하시고 나누어주신 사랑만큼 더 사랑 받으시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코로나는 우리 일상의 많은 것들을 앗아갔다. 친구와 신나게 칩 튀기며 떠들던 아이들은 마스크라는 장벽을 가운데 두어 서로의 표정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고, 선생님과 학생들은 서로 자주 만나지 못한 채 모니터 속에서의 모습만을 바라보며 한 해를 보냈다. 함께하던 모둠활동도, 친구

들과 몸을 부대끼며 놀던 체육활동도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위 사연처럼 우리는 익숙한 것의 소중함을 간절히 깨닫게 되었는데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멀리 떨어져 모니터 속의 마스크 쓴 얼굴을 바라보는 대신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 하는지 전보다 더 느낄 수 있다. ‘DJ가 쓴다! 교사 사연 뮤직박스’는 사소한 시작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작은 씨앗이 선생님들 마음 속에서 활짝 꽃피길 바란다.

★ 수업을 바꾸는 시간 10분, 수바시로 나누다!

♥ 경운샘이 들여다본 모꼬지

수바시(수업을 바꾸는 시간 10분)는 원격수업에 대한 고민과 효과적인 방법들을 공유하여 선생님들의 수업이 좀 더 편하고 즐거웠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다.

먼저, 원격수업(쌍방향수업)을 하며 선생님들이 힘들었던 점들을 멘티미터로 받아보았다. 발표는 총 3가지 챗터로 나누어 ①출석체크 ②학생, 학부모와의 소통방법 ③학습관리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쌍방향 수업 시 쉽게 출석체크 하는 방법, zoom 채팅, padlet, Google classroom을 사용한 수업 및 학습관리 방법도 소개하였다.

이어 진행된 인천대화초등학교 백사무엘 선생님의 수바시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수업 동영상 제작, 유튜브 채널 활용 등의 사례들로 가득했다.

그렇게 대단치 않은 우리 학급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 조금 쑥스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잘하기 위해 만든 모습이 아닌, 자연스러운 수업 모습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수바시는 내 수업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다행히 선생님들께서 많이 공감해주시고 비슷한 경험들을 이야기하며 채워주신 덕분에 수바시 시간이 풍성해진 듯하다. 함께 공감하고 더 좋은 수업을 위해 고민하셨던 선생님들께도 소중한 시간이었길 바란다.

★ 희망 나눔 온라인갤러리로 다함께 토닥토닥

♥ 경운샘이 들여다본 모꼬지



사상 초유의 코로나 상황에서 전 국민이 지쳐가는 시기에 우리 선생님들을 향한 응원은 좀처럼 찾기 힘들다. 그럴 때 누구 하나라도 날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내 편이 있다면 다시 힘이 나지 않을까? ‘희망 나눔 갤러리’는 지친 선생님들의 마음을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고자 운영되었다.

‘희망 나눔 갤러리’는 Padlet을 사용하여 동료 선생님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의미 있는 사진들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많은 선생님들이 마음 훈훈해지는 메시지를 올려주셨다. 감명 깊었던 시부터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동학년 선생님들과 힐링하는 시간을 담은 사진, 그리고 많은 응원 메시지



들로 아마 온라인으로 관람하시는 선생님들도 흐뭇하셨을 것이다. 희망 나눔 갤러리에 전시된 기억에 남는 두 가지 메시지를 소개하고 싶다.

희망 나눔갤러리 메시지 1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새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준비한 활동을 좋아해 주는 아이들을 보면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내년에는 아이들이 보다 자유롭게 공부하고 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희망 나눔갤러리 메시지 2

35분의 수업, 5분의 쉬는 시간, 틈없이 짧게 이어지는 수업 속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학교가 닫혔던 시기를 생각하면 이마저도 감사한 시간이지요. 성격 급하던 제가 아이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봅니다.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으로요.

서로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를 통해 우리 곁에 든든한 지원군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학생들을 다시 웃음으로 맞이할 기운을 받을 수 있었다.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아이를 바꾸는 마술 같은 시간, 기초학력 사례 나눔 속으로



코로나19로 각 학교에서 기초학력 대면지도가 어렵게 되어 학습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제 우리에게는 원격학습으로 인한 개인별 학력 격차와 학습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제4회 인천 초등 수업 페스티벌의 마지막 모꼬지는 기초학력 사례 나눔으로 진행하였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실천한 선생님들의 지도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검단고등학교 백경렬 선생님의 신비한 마술 공연으로 시작된 ‘희망, 한 아이를 바꾸는 마술 같은 시간’ 기초학력 사례 나눔은 전국교사마술교육연구회 회장인 인천발산초등학교 김택수 선생님이 마술로 흥미롭게 진행하였다.

첫 사례 발표는 인천장수초등학교 이정은 선생님의 ‘친친샘과 함께하는 즐거운 공부시간’이었다. 인천장수초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이 수업시간 중에 즉각적인 맞춤 도움을 받아서 마법 같은 1수업 2교사제인 협력교사 친친샘을 활용한 수업을 운영하였다. 수업 시간에 친친샘(협력 교사)의 도움 지도로 학습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이 모두 수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1수업 2교사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이어진 인천가원초등학교 김미형 선생님은 ‘한글이 좋아요’라는 주제로 한글돋움 교육 사례를 공유해주었다. 학교에서 국어교육 과정팀을 운영하며 1학년 교육과정을 재구성 하여 자료를 제작하고, 네이버 밴드 <한글이 똑딱>을 개설하여 소통과 자료의 축적 공간으로 활용하신 사례를 들려주었다. 또한 <옛이야기 되살리기>와 <북적북적 책놀이>로 옛이야기와 책놀이를 활용한 한글지도,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문해력 프로젝트를 실시했던 유익한 정보를 공유해주었다.

이어 진행된 인천서흥초등학교의 조세원 선생님은 동학년 교사들과 함께한 ‘모두를 위한 기초학력향상 프로젝트’ 사례를 나누었다. 저학년 학생들이 기초를 더 튼튼하게 해야 하고 이것이 앞으로 학생들의 향후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한다. 2학년 모든 학생이 ‘매일, 조금씩, 꾸준히’ 읽기유창성, 수학연산 유창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 결과 기초연산의 정확성과 속도가 약 25%의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인천단봉초등학교 고성근 선생님의 ‘기초학력 쑥쑥 나눔’은 기초학력보정시스템 활용, 지도 자료, 사례 등 꿀팁을 더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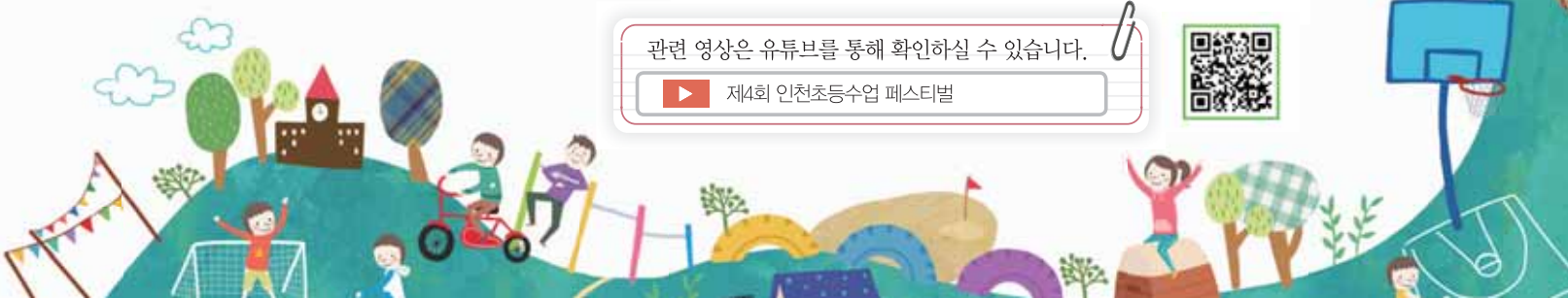
이번 사례 나눔은 선생님들이 늘 묵직하게 가지고 있는 기초학력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해결해가는 마술 같은 시간이 되었다.

★수업 나눔 모꼬지에필로그

문학에 ‘낯설게 하기’라는 기법이 있다. 일상화되어 친숙하거나 반복되어 참신하지 않은 사물이나 관념을 특수화하고 낯설게 하여 새로운 느낌을 갖도록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그냥 보면 안 되고 ‘들여다보아야’한다. 들여다본다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깊이 있게, 천천히, 자세히, 애정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 우리가 늘 익숙했던 ‘수업’, 다시 들여다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조금은 낯설게, 다르게, 새롭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하는 길에 우리는 수업 나눔 모꼬지로 함께 발걸음을 내딛었다.

교육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이해하는 시간, 수업에 대한 열정적인 고민이 들어 있는 수업 나눔과 체험 실습들로 채워진 이번 제4회 인천 초등 수업 페스티벌은 힘겨웠던 2020년의 우리를 찬찬히 돌아보고 다시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힘이 되었다. 성장이 아니더라도 또 어땠겠는가? 보이지 않게 주저앉아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에 그래도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목표가 선명해졌다면 또 기쁘게 걸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우리들의 별별별★ 수업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코로나19 시대에도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

김혜선 | 마을교육지원단 장학사

2020년은 코로나19가 우리 모두의 삶, 학교, 마을을 지배한 한 해였습니다. 체육대회, 체험학습, 축제 등을 통해 우정을 다지고 나만의 끼를 뽐내곤 했던 평범한 일상도 멈춰 버렸고, 모니터를 통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는 수업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25개의 2020년 마을연계학교 모델학교는 ‘마을을 통한, 마을에 관한, 마을을 위한 교육’으로 삶과 밀접하게 연계된 교육, 마을에서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월, 10월 중 4회에 걸쳐 진행된 ‘2020 우리마을교육 나눔 릴레이’에서는 지역별 모델학교의 사례를 나누며 마을과 함께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학교의 모습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중 몇 학교의 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덕분에 챌린지로 서로를 응원한 새말초등학교

모델학교 3년차에 접어든 새말초등학교는 다양한 마을 연계 교육활동과 마을 축제로 유명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을로 나가는 활동이 어려워지자, 새말초의 선생님들은 코로나19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바로 새말초 학생·학부모님의 ‘덕분에 챌린지’입니다. 아이들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담은 엽서와 영상을 제작하여 관내 보건소와 소방서에 전달하였고, 소방관 아저씨는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에 대한 감사인사를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학교가 주축이 된 만수꿈말교육공동체 주관으로 진행된 ON-LINE 남동청소년마을축제에서는 SNS로 신청한 가정에 축제 꾸러미를 보내주고, 라디오 생방송처럼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팝업놀이터, 마을교육공동체 포럼, 우리마을 복면대장, 트리닝, 청소년공간기획단 프로젝트 발표 등 다양한 축제 부스는 코로나19 시대 마을 축제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연계 창의발명동아리 부내초등학교

부내초등학교의 창의발명동아리는 마을 속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아서 발명아이디어를 통해 개선하는 동아리입니다. 학생들이 창출한 발명아이디어는 학부모, 마을교사들과 함께 특허전자출원을 통해 지식 재산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학생 발명교실, 마을교사 발명교실, 학교 교사 발명교실 등 온라인 콘텐츠와 특허전자출원 교재를 제공하여 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콘텐츠와 교재로 발명과 특허전자출원에 대해 학습한 학생들은 플립러닝으로 진행된 대면 수업에서는 발명아이디어에 대해 토의·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아리 학생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다기능 터치펜, 팔걸이 마우스 패드, 방수 선반 휴지걸이, 발청소 걸레, 만능배터리 측정기 등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하며 마을을 위해 이바지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친 선학중학교

선학중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 마을 주민들이 함께 협의하고 공부하며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학교입니다. 선학중 학생들은 영화로 배우는 한국사, 타로, 요리, 목공, 청소년 인권, 캘리그라피, 통기타, 전래놀이 등 흥미로운 수업을 마을교사와 함께 배우고, 전시회와 발표회를 통해 결과물을 공유합니다. 학교 안에 위치한 연수구 마을기업 똑딱이 공방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대상 목공 수업이 진행됩니다. 지역주민, 학부모, 학생이 함께 참여한 사랑나눔 연수구 가족봉사단 활동을 통해 직접 반찬을 만들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삶이 어려워진 이웃들에게 배달하며 마을을 위한 교육을 실천하였습니다. 2021년에 개관하는 교육문화복합시설에서는 더욱 다양한 마을연계활동과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4차 산업 동산고등학교

동산고의 마을연계학교는 마을 모두의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학부모와 마을의 전문가가 강사가 되어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접할 수 없는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였고, 학생, 학부모, 마을 주민 누구든 희망하는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개설된 강좌는 목공, 3D 프린팅, 도시양봉, 도시텃밭, 수채화 드로잉, 바리스타, 자동차 해부학, 가족공예, 생활도자기, 칠보공예, 요가, 자작시 등 이름만 들어도 귀가 쫑긋해지는 흥미로운 강좌들입니다. 특히, 자동차 해부학 수업은 마을 주민에게 기증 받은 자동차를 이용해 진행되어 자동차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이 자동차를 속속들이 이해하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디자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동산고 마을연계학교를 통해 학생들은 마을의 어른들을 통해 삶을 배우며 꿈을 키우고, 마을은 학생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을과 함께 하는 사계절 강화의 모델학교

강화도에는 총 8개의 모델학교가 있습니다. 시내 학교에 비해 학생 수가 적은 강화의 학교들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철저히 한 상태에서 마을과 함께 하는 계절 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모내기, 텃밭 가꾸기, 숲해설가와 함께 숲체험, 망둥어 낚시 등 마을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계절별 활동을 즐겼고, 지붕 없는 박물관인 강화의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아이들이 직접 평화·역사·문화 기행을 기획하여 실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학부모 동아리, 마을교육 학습공동체 등 학부모와 마을 주민의 적극적인 학교 참여로 코로나19 시대에도 마을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새말초 트리닝



부내초 창의발명동아리 발표 장면



동산고 마을연계학교 중
자동차해부학 수업



내가 계획하는 평화·역사·문화 기행,
역사기행 떠나기

위에 소개된 사례 외에도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마을연계학교 모델학교 운영 사례들과 마을연계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마을교육 자원이 지역별·영역별로 탑재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을연계학교 모델학교 운영 사례 검색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부서특화 → 마을교육공동체 → 마을연계 교육과정



지구반대편 콜롬비아로부터 전해진 감사와 감동의 증표

-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산카를로스 훈장 수훈 -

연수현 | 창의인재교육과 장학사

인천광역시교육청, 콜롬비아 훈장 수훈 쾌거

우리교육청은 콜롬비아와 교육정보화 분야에서 12년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온 결과 현지의 200여개 교육기관과 12,000여명의 학생이 ICT활용교육에 수혜를 입는 등 콜롬비아 곳곳에 ICT역량을 증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11월 30일 주한콜롬비아 대사관에서 '후안카를로스카이자로세로' 대사로 부터 산 카를로스 훈장(Orden de San Carlos)을 수여 받았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콜롬비아와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사업을 시작하다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사업은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중 교육분야 국제협력 활동으로 시작되었으며 인천은 2009년부터 콜롬비아와 교류를 시작하여 콜롬비아 교원들의 정보역량개발을 위해 인적, 물적 지원을 지속해왔다. 특히 관내 우수 교원들로 구성된 연구회(인천 LEAD교사 연구회)가 조직되어 ICT교육 교원 연수 및 기자재 보급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체제를 담당하고 있다.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체계〉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 교류협력국 초청연수 : 매년 20명의 콜롬비아 교원을 초청하여 약 2주동안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첨단 ICT교육(SW교육,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3D프린팅교육, 드론 등) 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교사간 토론, 한국문화체험, 홈스테이, 기업체 및 학교방문 등을 통해 다각적인 교류와 교육적 현안을 공유하고 있다.

(교류협력국 교사연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해마다 19명 선발에 220명이 넘는 콜롬비아 교사들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

연수 소감

“한국은 잘 갖춰진 정보화 인프라가 인상적이며, 더 오랜 기간 머물면서 인천교사들의 질 높은 IT기술교육을 받고 싶다. 그동안 교류협력국 연수에 다녀간 교사들은 자부심이 크며 실질적으로 콜롬비아 교육의 정보화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쎬싸르 아오구스또 구띠에레스 로드리게스 교사 -

▶ 교류협력국 방문 및 추수지도 : 매년 사업부서 담당자, 교사연구회 대표교사 등 6 ~ 7명이 현지를 방문하여 기지원한 ICT 기자재 활용 점검, 한국방문 교원대상 심화연수 및 간담회를 통해 양국간 교류확대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 기자재 지원 : 매년 교원 연수용 노트북 20개와 코딩교구set 등 지원하고 있다.

(교원 연수용 노트북 200대 지원, 코딩교구 지원: 19년 37set, 20년 100set)

▶ 수상 : 콜롬비아 교육부장관 공로패 수상(2016년), 콜롬비아 정부의 산 카를로스 훈장 수여(2020년)

국제교류협력이 우리 인천교육엔 어떤 영향을 주는가?

“우리에게 좋은 교육을 확산”하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바탕으로 인천 LEAD 교사연구회를 중심으로 해마다 연구회 조직을 확산하면서 교사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과 2020년에는 인천교사들이 직접 개발한 코딩교구(대장장이보드, 고릴라쉴드)를 기증하고 소개하여 인천교사들의 보유한 SW기술의 세계화라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인천에서 배우고, 콜롬비아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선생님들

콜롬비아는 우리나라에 비해 ICT교육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편이고 지방으로 갈수록 교육환경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진다. 가정 내 정보기기는 매우 부족하며, 정보기기를 보유한 학교도 드물다.

(지방 학생의 59%는 PC나 스마트폰 등 전자통신기기 접근 없음, 전자기기 소유 고등학생 비율 63% 수준임)

그러나 새로운 ICT교육에 대한 열망이 크기에 초청연수에 다년간 교사들은 한국에서 받은 기자재를 가지고 본인 학교 뿐 아니라 인근지역까지 전파 연수를 하고, 인천에서 배운 ICT 교육내용을 교실 현장에 적용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2019년 한국의 온라인 SNS 기반 학급간 프로젝트 국제교류 수업 사례, 실감형 콘텐츠(증강현실 및 가상현실)를 활용한 창의 융합 STEAM 연수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 콜롬비아 현지 방문 연수 때에는 컴퓨터 환경과 인터넷망 등이 열악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한국에서 받은 코딩 교구 1set를 40명이 넘는 반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공유하면서 모듈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장면은 배움에 대한 순수한 열망과 가치를 느끼게 했다.

콜롬비아 내 보도자료

구아스까(Guasca) 마을의 가상(온라인) 교육을 실행한 교사.



Iverson Camilo Malagón

El profe que llevó la educación virtual a las fincas de Guasca

Iverson Camilo Malagón logró que los niños de una zona rural aprendieran con sus estudios en su casa.

제이슨 까밀로 말라곤 교사는 코로나바이러스 검역기간 동안 시골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학업에 방치되지 않기 위해 취약한 조건에 있거나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인터넷 접속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가상 교육 문화를 통해 모두가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교사는 교육목적의 소셜 네트워크인 한국의 '클래스팅'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역구성원들이 함께 학습환경 구축에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중략>

제이슨 교사는 “우리가 달성하려는 것은 모두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단순한 학습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 마인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농촌 지역에도 새로운 기술의 경험을 하며, 새로운 생활 방식을 모두가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2020.7.6. 인천-콜롬비아 화상 워크숍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도 식지 않는 가르침의 열정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접적인 교류와 연수가 불가능해지자 사업방식을 바꾸어 온라인 연수와 1:1 교사 매칭 프로젝트로 교류를 전환하였다. 2020년 7월에는 양국간 화상 워크숍을 개최하여 인천-콜롬비아 교사 38명이 1:1로 팀을 이룬 가운데 각각의 온라인 교류 협력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류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1:1 프로젝트 주제는 인공지능이나 피지컬 컴퓨팅 교구를 활용한 환경보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교수학습 환경 연구, 정보를 융합시킨 교수 방법, 게임 형식의 로봇 제작 및 비디오게임 개발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한국초청 연수 때 최종 성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콜롬비아와의 중장기 빅 프로젝트

향후 우리교육청은 콜롬비아 교육부의 교류확대 요구에 부응하고 사업추진 개선을 위해 상시연수체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2021년 자체예산 1억원을 투자하여 콜롬비아 보고타에 온라인 스튜디오를 겸한 스마트교실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양국간 TF팀을 구성 후 공동 설계와 역할분담을 통해 수원국의 주체적 참여를 유도하고 중장기적 협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인천시교육청-콜롬비아 교육부와의 양해각서 체결(2020. 11.)

- 목적 : 교육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콜롬비아-한국간 협력관계 강화
- 내용 - 교육에 ICT 적용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과 아이디어 공유
 - 교육콘텐츠 공유 및 전문가 교류 증진
 - 상호 합의에 따른 이러닝 활동분야 협력



한국학교 방문 및 공개수업참관



진심이 오가는 교류의 현장



콜롬비아 현지 방문



콜롬비아 추수 연수



한국 초청 연수



2020년 기자재 지원

훈장수여식에서 주한 콜롬비아대사 후안 카를로스 카이사 대사는 2021년 2월 콜롬비아대통령 방한시 교육분야 행사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을 특별게스트로 초대하여 양국의 교육분야 협력 방안 확대를 논의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우리교육청은 2022년 콜롬비아와의 수교 70주년을 기념하여 스마트교실 및 첨단교실 사업을 기폭제로 교류협력의 양과 질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세부방안을 수립 중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챗봇 "응다비"입니다!

카카오톡 Ch 인천시교육청+ 친구 추가 후 클릭! 채팅하기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활동기

손상경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주무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임지훈 위원장, 서정호 제1부위원장, 정창규 제2부위원장, 김강래 의원, 김종인 의원, 김진규 의원, 이오상 의원)는 지난 10월 ~ 12월 기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도서지역 학교의 열악한 시설 및 근무환경 실태를 직접 파악하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교육현장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2020.10.12.(월) 덕적초·중·고 방문

10월 12일(월)에는 도서지역의 덕적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도서지역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파악하였다. 특히, 노후화된 관사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 외에 야구부 창단 요구 등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 하는 등 현장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2020.11.9.(월) ~ 12.1.(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2020년 11월 5일(목) ~ 12월 17일(목)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는 11월 9일(월), 11일(수) 공공도서관, 11월 10일(화) 직속기관, 11월 12일(목) 교육지원청, 11월 13일(금) 본청, 11월 16일(월) 인천광역시교육청 전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교육·학예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요구하였다.

특히, 무상교복, 무상급식 입찰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2020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추진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코로나 장기화를 대비해서 원격수업 등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2021년도에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교육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월) ~ 11월 30(월)까지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2021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다.

특히,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 시 인천평화학교 추진에 대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며, '인천평화학교 설립 타당성 용역비 1천만원 증액'을 요청하고, 평화학교 시설비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2021년도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하여 각종 재난대비 방역, 예방지원 사업, 온라인 수업 등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교육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2021년도 본예산(안)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심사하였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12월 14일(월) 인천광역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하였다.



크리스마스 카드 & 연하장 그림 공모전 수상작
대상 양혜빈